

##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안 선 경<sup>†</sup>

정 여 주

한국교원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이르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57명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 척도,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하여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대인관계문제로 이루어진 측정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모형, 경쟁모형1, 경쟁모형2 중에서 경쟁모형2가 가장 적합하고 간명한 모형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다(NFI=.927, TLI=.920, GFI=.925, CFI=.944, RMSEA=.089). 셋째,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선행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학생, 거부민감성, 대인관계문제,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 본 연구는 안선경(2016)의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안선경, 마산신일초등학교, (5177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40

Tel : 010-7524-1283, E-mail : ansk0117@naver.com

대학생 시기는 발달 심리적 입장에서 후기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에 속하며 처음으로 성인의 규범과 책임을 습득하고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갖게 되는 때로 전 생애 발달 과정 중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이다(장휘숙, 2008). 특히 대학생들은 이전의 타율적인 환경과는 달리 갑자기 확대된 사회적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스스로 형성해야 하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또 이에 대해 고민한다.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성인초기인 대학생 시기의 주요 성취 과업은 친밀감 형성을 통하여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원만한 경우 건전한 성격발달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정체성이 확립되며 애정 및 친밀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으로부터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권석만, 1997). 즉,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 및 발달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이민선, 2010). 따라서 이 시기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들에게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문제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하며 학생 상담 센터를 찾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에게 대인관계와 관련된 고민은 개인상담 뿐 아니라 집단 상담에서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각한 경우 자살 충동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고 있다(내일신문, 2008, 05, 22).

이렇게 성인 초기인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 형성이 개인에게 중요한 과업이며 대학생

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 만큼,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김여량(2013)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완벽주의를 통해 대인관계에 문제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명성(2002)과 황지영(2005)의 연구에서도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양민정(2011)에 의하면 애착 및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로부터 대인관계와 관련된 변인은 우울취약성(박송이, 2009), 부모의 양육태도(김인성, 2010), 복합외상경험(고나래, 2008), 부모화 경험(김유숙, 2014), 부모와의 의사소통(권희정, 2013), 자존감에 의한 방어기제(김중태, 1999), 자아방어기제 및 부모양육태도(황광숙, 2006), 방어유형(강연우, 2004), 거부민감성(김나영, 2009) 등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인들 중 특히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으로 두었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란 개인이 주요 타인에게 거부당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써, 상대방부터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항상 이를 지각하며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인지-정서적 처리 경향성이다(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를 미리 지레 짐작하여 불확실한 상황에도 거부로 해석하고 자기 침묵과 같은 회피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거나 적대감을 표현하는 등 비적응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Christman(2012)에 의하면 이러한 부적응적 반응들은 대인관계를 만들고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많

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 외에도 타인의 거부민감성은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며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거부민감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아동기의 거부당한 경험에서 발달되어 이후의 대인관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이 높은 학생들의 개인 발달사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안상원, 2014). 따라서 상담현장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 이들의 치료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표현 양가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외부에 자신을 알리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의 필요와 의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김혜림, 2015). 또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적 기능을 함으로써(이지영, 권석만, 2006) 자신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적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 있어 정서표현능력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과 사회 규범 등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매순간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는 못한다(최해연, 민경환, 2007). 특히 자신의 감정이 수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정서 표현을 억제하며, 사회적 규범 혹은 문화적 맥락 때문에 정서 표현을 억제하기도 한다(김혜림, 2015).

이렇게 정서를 표현하고자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고 갈등하는 것을 정서표현 양가성이라고 한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사람들은 정서표현에 갈등을 느끼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갈등하며 정서표현이 필요한 상황에서 표현을 억제하는 등 자신의 정서표현을 통제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정서표현 억제의 동기에 따라 정서표현 양가성을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두 가지 요인으로 제안하며 정서 반응에 있어서 표현에 대한 동기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먼저,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자신이 정서를 표현했을 때 상대에게 거부되거나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으며, 정서표현 후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방어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를 상대방에게 표현하였을 때 수용되지 않고 비난을 받은 등의 경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정서적 상황에서 자신의 표현을 망설이게 된다(이정선, 2012).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그 상황과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상관리 및 관계성을 고려하여 표현 행동을 통제하고 신중함을 기하는 갈등적 특성이다. 즉 이는 자신의 체면 손상과 같은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로 인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볼 수 있다(이미화,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관계관여적 양가성보다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기능하였다. 최해연(2008)의 연구에서 신체화, 강박증, 대인간 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적 불안, 피해망상, 정신증의 심리증상들과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관련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의해 설명된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대인민감성, 강박증, 우울과 같은 심리증상에만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낼 뿐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비해 심리증상과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 최해연, 민경환, 이동귀(2008)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심리증상을 보다 강력하게 예언하는 반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심리증상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은희(2012)의 연구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비해 우울과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미화(2013)의 연구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인지적 재해석 빈도가 높고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반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사용 빈도를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윤달아(2012)의 연구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결혼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동기적 속성이 자기방어적 차원인지 관계보호적 차원인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경험 및 적응 또한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

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를 피하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 및 감정을 더 많이 억제시키며(Impett, Gable, & Peplau, 2005), 자기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Downey & Feldman, 1996). 또한 Stuart와 Sundeen(1987)는 거부민감성향의 사람들은 아동기에 가졌던 부모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성인인 된 후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져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분노와 같은 감정을 직접 표출하는 것을 자제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혜련(2011)의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내면에서 경험되어지는 감정을 덜 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연숙(2015)의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져,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지혜(2013)의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 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 및 관계관여적 양가성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관계관여적 양가성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오충광, 정남운, 2007).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은 타인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해

서 지각하여 자신의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가질수록 상호작용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김정모와 장정주(2008)의 연구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이정원(2012)의 연구 등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다. 특히 구승희(2011)의 연구에서 정서표현에 양가적인 대학생일수록 사회적 적응을 어려워하며 대인관계에서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영진(2005)의 연구에서 정서표현 갈등이 높을수록 부적응적인 대인관계유형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경아(2015)의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 중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비해 대인관계문제와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우현주(2016)의 연구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비해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은미(2014)의 연구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달리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대인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 요인에 따라 대인관계문제를 다르게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모두에 영향을 미쳐 정서표현 양가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구조모형으로 설정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제안한 최해연(2008)은 본인의 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을 단일 요인으로 보는 것보다 두 요인으로 나누어 구조방정식 모델 검증을 한 결과가 유의하게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이 두 요인이 준거변인들과 변별되는 패턴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두 요인 간의 높은 상관은 단일요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두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설명적 관계이며 연결성의 증거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요인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관계관여적 속성에 자기방어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시한 최해연(2008)의 연구에 따라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경험함으로써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경쟁모형에서 두 요인 간에 경로설정을 하였다. 그리고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달리 대부분 대인관계문제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경아(2015)의 연구 결과에 따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모형2에는 이러한 직접 경로를 삭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거부민감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대인관계문제로 이루어진 측정모형은 타당할 것이다.
2. 그림 1의 연구모형은 그림 2의 경쟁모형1과 그림 3의 경쟁모형2에 비해 타당할 것이다.
3.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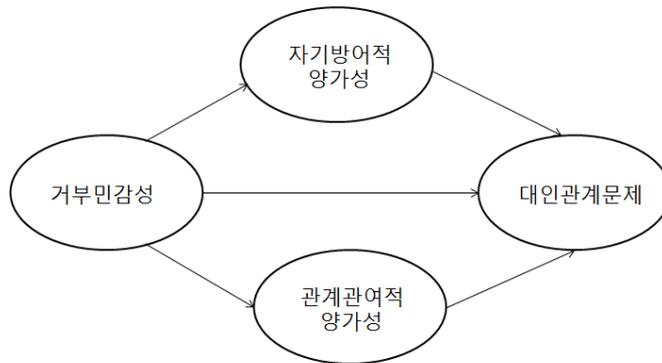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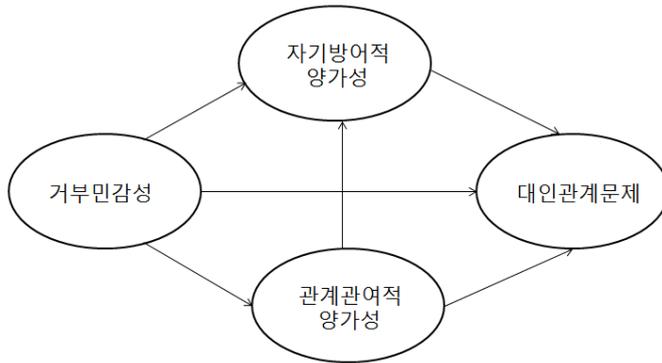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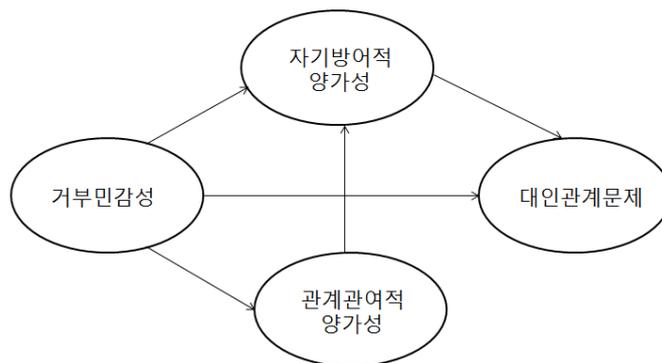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2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180부 배부하여 회수된 171부 및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라인 설문지의 링크를 걸어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수거된 219부, 총 390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33부를 제외한 357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전 연구에 대한 안내와 설문 조사의 목적, 비밀 보장, 참가자의 권리 및 설문 응답방식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설문도 동일한 내용의 안내문을 온라인 설문지 상단에 게재한 후 설문 참여에 동의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전체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자가 139명(38.9%), 여자가 218명(61.1%)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21.9( $SD=2.01$ )였다.

### 측정도구

#### 거부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척도를 이복동(200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서는 대학생의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및 잠재적 친구 등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18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각각의 상황마다

자신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걱정하는 정도 및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도를 묻는 2가지 내용의 질문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하여 6점 Likert척도로써 거부민감성 점수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거부불안 점수와 역산된 거부기대 점수의 곱 점수를 합하여 18로 나눈 값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변량과 오차변량을 제외한 공통변량이 .30이하인 문항을 제거한 후 총 18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3요인으로 추출하였으며 총 18문항에 대한 거부민감성 총점은 총 합산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 3요인을 각각 일상적 타인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영역에서의 거부민감성으로 명명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한국 문화적 맥락에 맞게 최해연, 민경환(2007)이 타당화하고 요인분석한 후 원척도에서 4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번안을 마친 한국판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두 요인이며 각각 13문항,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90이었으며,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88,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90,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85로 나타났다.

### 대인관계문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의 평가를 위하여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Villasenor (198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 Pincuss(1990)가 재구성한 대인관계문제척도를 홍상황 등(2002)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통제지배(PA), 자기중심성(BC), 냉담(DE), 사회적 억제(FG), 비주장성(HI), 과순응성(JK), 자기희생(LM), 과관여(NO)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큼을 의미한다. 또한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서 대인관계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61~.89의 범위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오남경(2009), 안은화(2012), 정혜진(2014)의 연구와 같이 Horney(이희경, 윤인, 이해라, 조한익, 2006)의 이론에 적용하여 그 속성에 따라 사람들에게 향함(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사람들에게 맞섬(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관여), 사람들에게서 멀어짐(냉담, 사회적 억제)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dow 22.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먼저

가설 검증을 위한 선행분석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1단계에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2단계에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 중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가 있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는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서 GFI, AGFI, RMSEA 등이 있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기저모형에 비해 이론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NFI, AMOS 결과에서 TLI로 나타나는 NNFI, CFI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표본 크기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고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인 TLI와 RMSEA를 기준으로 CFI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홍세희(2000) 또한 만족스러운 적합도 지수로 TLI, CFI, RMSEA를 제안한다. TLI, CFI, NFI, GFI는 1과 가까운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지수라고 볼 수 있으며, 모형의 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를 나타낸다(홍세희, 2000). 다음으로, 최종모형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통해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500개의 표본을 원자료(N=357)로부터 생성하여 신뢰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관찰 변인의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첨도와 왜도를 살펴보았다. 다변량 측정 변인의 왜도는 < 2, 첨도는 < 7인 경우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측정변인들의 경우 모두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아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

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문제( $r = .657, p < .001$ ), 정서표현 양가성( $r = .586, p < .0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으로 대인관계문제의 하위 영역 중 사람들에게 향함이 거부민감성과 유의하게 가장 상관이 높았고( $r = .635, p < .001$ ) 다음으로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r = .580, p < .001$ ), 사람들에게 맞섬( $r = .447, p < .001$ ) 순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 영역 중 자기방어적 양가성( $r = .608, p < .001$ )이 관계관여적 양가성( $r = .426, p < .001$ )보다 정적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 $r = .653, p < .001$ )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에게 향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수	M(SD)			왜도	첨도
	전체	남	여		
거부민감성	36.90(12.19)	35.95(11.87)	37.50(12.37)	.422	-.102
거부민감성1	22.46(7.60)	21.41(7.47)	23.13(7.61)	.377	-.229
거부민감성2	14.43(5.97)	14.53(5.70)	14.36(6.15)	.498	-.355
거부민감성3	9.80(4.09)	9.83(3.75)	9.78(4.30)	.352	-.555
정서표현 양가성	64.86(16.68)	64.06(15.21)	65.37(17.57)	.088	.156
자기방어적 양가성	39.71(11.62)	38.97(10.44)	40.19(12.31)	.248	.007
관계관여적 양가성	25.14(6.35)	25.09(6.02)	25.17(6.57)	-.276	.341
대인관계문제	98.49(27.81)	95.38(27.60)	100.48(27.82)	.450	.396
사람들에게 향함	40.50(13.08)	38.82(11.80)	41.58(13.75)	.574	.561
사람들에게 맞섬	35.19(10.08)	33.89(10.10)	36.03(10.00)	.298	.223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2.27(.94)	22.67(9.11)	22.86(9.64)	.809	.393

표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N=357)

구분	1	2	2-1	2-2	3	3-1	3-1-1	3-1-2	3-1-3	3-2	3-2-1	3-2-2	3-2-3	3-3	3-3-1	3-3-2
거부민감성(1)	1															
정서표현 양가성(2)	.586***	1														
자기방어적 양가성(2-1)	.608***	.962***	1													
관계관여적 양가성(2-2)	.426***	.866***	.696***	1												
대인관계문제(3)	.657***	.653***	.691***	.450***	1											
사람들에게 향함(3-1)	.635***	.697***	.694***	.560***	.879***	1										
비주장성(3-1-1)	.656***	.696***	.706***	.538***	.827***	.873***	1									
과순응성(3-1-2)	.581***	.582***	.587***	.454***	.800***	.935***	.738***	1								
자기회생(3-1-3)	.443***	.571***	.547***	.499***	.712***	.861***	.562***	.762***	1							
사람들에게 맞섬(3-2)	.447***	.395***	.455***	.205***	.822***	.544***	.447***	.509***	.498***	1						
통제지배(3-2-1)	.317***	.254***	.315***	.090***	.651***	.364***	.273***	.349***	.354***	.887***	1					
자기중심성(3-2-2)	.461***	.378***	.436***	.195***	.751***	.467***	.538***	.426***	.266***	.775***	.573***	1				
과관여(3-2-3)	.306***	.325***	.353***	.208***	.603***	.490***	.270***	.465***	.595***	.786***	.618***	.306***	1			
사람들에게서 멀어짐(3-3)	.580***	.538***	.590***	.332***	.851***	.624***	.749***	.518***	.373***	.602***	.466***	.740***	.257***	1		
냉담(3-3-1)	.540***	.502***	.560***	.292***	.811***	.561***	.692***	.467***	.312***	.610***	.482***	.759***	.241***	.963***	1	
사회적 억제(3-3-2)	.577***	.534***	.576***	.348***	.829***	.641***	.750***	.531***	.407***	.552***	.417***	.668***	.255***	.965***	.859***	1

\*\*\* p < .001

함( $r=.697, p<.001$ ),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r=.538, p<.001$ )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맞섬( $r=.395, p<.001$ )은 낮은 상관을 보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영역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r=.691, p<.001$ )이 관계관여적 양가성( $r=.450, p<.001$ )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이론모형에서는 잠재변인을 거부민감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대인관계문제 등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은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네 개의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네 개의 잠재변수 간 상관을 허락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3, 모수 추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변인의 모든 관측변인들의 요인부하량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chi^2$	df	NFI	TLI	GFI	CFI	RMSEA
측정모형	162.43	45	.932	.926	.930	.950	.086

표 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잠재변인	관측변인	Estimate	S.E.	C.R.
거부민감성	→ 거부민감성1	.84		
	→ 거부민감성2	.74***	.067	13.81
	→ 거부민감성3	.55***	.070	10.07
자기방어적 양가성	→ 자기방어적 양가성1	.77		
	→ 자기방어적 양가성2	.89***	.062	17.74
	→ 자기방어적 양가성3	.81***	.060	16.10
관계관여적 양가성	→ 관계관여적 양가성1	.86		
	→ 관계관여적 양가성2	.65***	.068	12.44
	→ 관계관여적 양가성3	.67***	.064	12.99
대인관계 문제	→ 사람들에게 향함	.88		
	→ 사람들에게 맞섬	.60***	.045	11.75
	→ 사람들에게서 멀어짐	.73***	.060	15.09

\*\*\*  $p < .001$

이 .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R. 값은 모두 10.00 이상으로 유의(C.R. > 1.965)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거부민감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대인관계문제는 각 측정변수들에 의해 잘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구조모형 분석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각각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모형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추가한 경쟁모형1, 경쟁모형1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에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삭제한 경쟁모형2에 대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과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모형 비교를 위하여 먼저 연구모형, 경쟁모형1, 경쟁모형2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NFI, TLI, GFI, CFI, RMSEA 모두 연구모형에 비해 경쟁모형1, 2가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으므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먼저, 연구모형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추가됨에 따라

경쟁모형1은  $\chi^2=175.89$ ,  $df=46$ ,  $p<0.001$ , NFI=.927, TLI=.920, GFI=.925, CFI=.944, RMSEA=.089(90% 신뢰구간 값 .075~.103)으로 연구모형에 비해 모델적합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경쟁모형1에는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관여적 양가성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Estimate=.637, C.R.=8.874,  $p=.000$ ). 또한 경쟁모형1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에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삭제한 경쟁모형2의 적합도 역시  $\chi^2=177.93$ ,  $df=47$ ,  $p<0.001$ , NFI=.926, TLI=.921, GFI=.924, CFI=.944, RMSEA=.088(90% 신뢰구간 값 .075~.102)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모형의 적합도가 유사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난 두 모형 경쟁모형1과 경쟁모형 2는 내포관계(nested relation)에 있어  $\chi^2$ 차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살펴보면 이들의  $\chi^2$ 차이는 자유도(df) 차이가 1인 상태에서 유의확률 .05 수준의  $\chi^2$  임계치 3.84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Delta\chi^2(1)=2.04$ ,  $p<.05$ ). 이와 같이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경쟁모형2에 비해 경쟁모형1에 추가되어있는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경로가 자료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Estimate=-.169, C.R.=-1.378,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chi^2$	df	NFI	TLI	GFI	CFI	RMSEA
연구모형	283.75	47	.882	.857	.873	.898	.119
경쟁모형1	175.89	46	.927	.920	.925	.944	.089
경쟁모형2	177.93	47	.926	.921	.924	.944	.088

표 6. 경쟁모형1과 경쟁모형2의 간명적합지수 비교

모형	PGFI	PNFI	PCFI	AIC
경쟁모형1	.546	.646	.658	239.90
경쟁모형2	.557	.659	.672	239.92

$p=.168$ )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경우 보다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게 되므로(홍세희, 2009) 경쟁모형1과 경쟁모형2의 간명적합지수를 비교해보았다. 각 모형의 간명적합지수는 표 6과 같다.

PGFI, PNFI, PCFI는 독립모형과 실제 개발한 모형의 자유도의 비(ratio)인 간명비를 GFI, NFI, CFI에 곱한 것으로 0~1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 값이 클수록 추정된 모수가 적고, 단순한 모형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AIC는 개발한 모형의 단독 괴리 정도를 이용한 정보 기준량을 바탕으로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모형의 복잡성이 커지면 이 값 또한 커진다. 그러므로 AIC 값은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한다(허준, 2013). 두 모형의 AIC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경쟁모형2는 경쟁모형1에 비해 PGFI, PNFI, PCFI가 모두 더 큰 값을 가지므로 보다 간명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합도와 간명도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경쟁모형2가 가장 좋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다.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모형의 직접효과 크기 및 이에 대한 검증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의 각 직선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직·간접 효과 분해

최종 모형의 총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다음 직·간접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500개의 표본을 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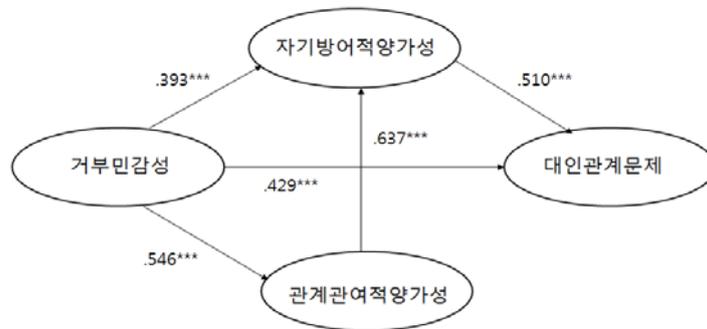


그림 4. 최종모형

표 7.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이론 구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 자기방어적 양가성	.578	.393	.093	6.207***
거부민감성 → 관계관여적 양가성	.671	.546	.104	6.442***
→ 대인관계문제	.628	.429	.104	5.621***
자기방어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476	.510	.065	6.997***
관계관여적 양가성 → 자기방어적 양가성	.739	.637	.083	8.874***

\*\*\*  $p < .001$

표 8. 효과분해 및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결과 (N=357)

관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총	직접	간접	총	직접	간접
거부민감성 → 자기방어적 양가성	1.074**	.578**	.496**	.742**	.399**	.343**
거부민감성 → 관계관여적 양가성	.671**	.671**	-	.542**	.542**	-
거부민감성 → 대인관계문제	1.140**	.628**	.512**	.846**	.466**	.380**
관계관여적 양가성 → 자기방어적 양가성	.739**	.739**	-	.632**	.632**	-
관계관여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352**	-	.352**	.324**	-	.324**
자기방어적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476**	.476**	-	.512**	.512**	-

\*\*  $p < .01$

료(N=357)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최종모델의 총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추정된 다음 직·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거부민감성에서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모두를 포함한 전체 매개효과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중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경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간접효과 및 총 효과가 유의하였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자기방어적 양

가성이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시사한다. 결국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매개로 하였을 경우에 한해 대인관계문제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갓 사회에서의 다양한 대인관계를 시작하는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을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자기방어적 양가성 및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대인관계문제 등의 네 가지로 구성된 측정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부민감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 대인관계문제의 사람들에게 향함 영역은 각 측정변수들에 의해 잘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들 네 요인으로 인과적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거부민감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 및 관계관여적 양가성을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 2를 검증한 결과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선행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를 가정한 경쟁모형 2가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최종모형에 제시된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높아지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힌 김향선(2011)과 이정석(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거부민감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의 거절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에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여 타인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Ayduk, Downey, Testa, Yen, & Shoda (199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거부민감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 및 관계관여적 양가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내면에서 경험되어지는 감정을 덜 노출한다고 밝힌 박혜련(2011)의 연구 및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김진선(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정지혜(2013)의 연구결과 및 거부민감성이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곽지혜(2016)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결국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여러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해내는 경향이 있음에도 타인의 거절을 우려하여 정서를 쉽게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타인의 거부에 민감할수록 정서 표현 이후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서표현에 대한 불능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방어적 동기를 내포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위하여 정서표현을 통제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요인 간의 관계에서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경험할 가능성이 많음을 밝힌 이미화(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 및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구분하는 하위요인이지만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요인 간의 높은 상관은 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설명적 관계이며 연결성의 증거라고 본 최혜연(2008)의 연구에 따라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두 가지 정서표현 양가성은 VIF 및 공차검증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서로 다른 변인으로 지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최혜연(2008)은 관계관여적 속성에 자기방어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조심하여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관계 정서적 신념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자 자신의 정서표현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관계관

여적 양가성을 경험함으로써 자기방어적 양가성 또한 경험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이 두 가지 정서표현 양가성을 모두 경험하는 경우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선행하여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대인관계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정은미(2014)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즉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을수록 정서표현 이후 타인으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정서적 상황에서 자신의 표현을 망설이며, 결국 이러한 모습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표현은 자신의 정서를 외부와 공유하여 스스로의 내적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의사소통수단이며 자신이라는 인격체를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외부로 전달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이영식, 2015). 이렇게 정서표현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회적 적응의 의미를 가지며(장정주, 김정모, 2011) 사회관계 내에서 정서표현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개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 및 정서상태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억제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에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이것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거부민감성으로부터 정서표현 양가성의 향상을 가져 오고 이를 통하여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설정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거부민감성은 아동기의 애착관계에서 형성된 거부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데(Bowlby, 1980), 이러한 초기의 거부경험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개인에게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단정 짓는 잠재적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이복동, 2000). 결국 거부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 타인의 거절을 우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는 방어적 동기를 가진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대인관계문제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선행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대부분의 대인관계문제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경아(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경우 자신의 인상관리와 타인과의 관계보호를 위하여 정서표현을 통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서표현이 상황과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하는 경우이다(최해연, 2008).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기보다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하는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대인관계 유지 측면에서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미화(2013)의 연구를 통해 이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관여적 양가성만으로 대인

관계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또 다른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경험하면서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nnebaker(1992)의 연구에서도 정서표현 양가성이 특정한 사회적 맥락 때문에 표현을 억제하는 경우 반드시 그 기능이 역기능적이지는 않지만, 강한 정서에 대한 표현 욕구를 가짐에도 감정을 공유할 가까운 관계가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자에서 말하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 때문에 표현을 억제하는 경우는 한국의 집단주의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유지를 위하여 정서표현에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후자에서 말하는 감정을 공유할 가까운 관계가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경우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가 결여된 상황에서 정서표현 이후 상대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기반이 되어 있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거치는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으로 기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거부민감성은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요인 모두에 직접 영향을 주긴 하지만 관계관여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통해서 대인관계문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더 많이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화가 나지 않도록 더 많이 자신을 희생하는 등 순응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필사적인 회피행동을 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는 Impett et al.(2005)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거부민감성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거부에 민감하고 불안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정서를 표현했을 때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정서표현에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이 교차되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서표현 양가성이 발생하면 개인은 내적 긴장을 지니며(권다운, 2015)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향하거나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등의 대인관계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평정척도에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모든 설문지에 대학생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직접 체크했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을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높은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더욱 솔직한 응답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와 함께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연구와 같은 방법이 병행되어 응답을 함께 살펴본다면 조금 더 정확하고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대상의 표집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다른 연령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약 48%가 특정지역의 대학생으로 한정지어졌으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폭 넓고 다양한 피험자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검사와 온라인 검사를 섞어 사용하였는데 온라인 검사의 경우 특정 성향을 가진 집단에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진, 임선진, 김진훈, 윤해주(2008)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자의 기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는 이 차이가 설문방법의 차이인지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검사의 편향성에 대해 입증하기는 어렵다. 또한 안주아와 한주리(2010)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여론조사의 참여자들의 성향이 편향되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문제를 측정하는 검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오프라인 검사만 실시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단기간의 횡단적 자료에 의한 것이므로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척도들이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이 세 가지 변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설명력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 및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으나 아직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가지 요인을 구분해서 보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서표현양가성을 두 하위 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 밝혀진 관계관여적 양가성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더 많은 설명력을 줄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후속연구에서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지혜 (2016). 불안애착이 연인관계 내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승희 (2011).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 대학생 활 적응 및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다운 (2015).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과 분노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희정 (2013). 대학생의 완벽성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건, 임선진, 김진훈, 윤해주 (2008).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자의 기질 특성 : 성인 인터넷 중독 검사 설문자를 대상으로. 정신신체의학, 16(1), 31-37.
- 김나영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여량 (201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 (2014).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인성 (2010). 남·여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와 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모, 장정주 (2008). 정서적 지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김중태 (1999). 자존감에 의한 방어기제와 대인관계의 관련성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선 (2009). 거절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자기침묵을 매개변인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선 (201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자기격려의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림 (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에

-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내일신문 (2008, 5, 22). 대학생 절반 "자살충동 느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2&oid=086&aid=0001945868> 에서 2015, 3, 25 자료 얻음.
- 박송이 (2009). 우울취약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련 (2011).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감정노출이 이성관계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영진 (2005). 정서표현갈등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성 (2002).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존중감 및 대인관계문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상원 (2014).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은화 (2012). 대학생의 분리-개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주아, 한주리 (2010). 온라인 여론조사의 참여자는 누구인가?: 그루닉의 상황이론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8(2), 59-82.
- 양민정 (2011).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남경 (2009). 대학생의 애착요인과 분리개별화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충광, 정남운 (2007). 정서표현갈등과 상담자 지각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1), 115-136.
- 우현주 (2016).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대학생의 분노억제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달아 (2012). 정서표현 양가성과 결혼 만족도의 관계: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선 (2011).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거절민감성과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 (2013).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인지적 재해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선 (2010).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식 (2015). 대학생의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를 조절변수로 하여.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12). 자기침묵과 정서표현양가성이 결혼만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석 (2013). 거부민감성과 정서강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 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2012). 정서표현양가성, 정서조절 양식 및 대학생활의 사회적 적응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원 (2012).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이희경, 윤인, 이해라, 조한익 (2006).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서울: 학지사.
- 장정주, 김정모 (2011). 정서자각에 기초한 정서표현 훈련이 정서자각, 정서표현, 정서표현의 억제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23(4), 861-884.
- 장휘숙 (2008). 가족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경아 (2015).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미 (2014). 대학생의 정서표현 양가성과 의사소통 유형이 대인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2013). 거절민감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 (2014).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숙 (2015).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08). 상담일반: 정서표현신념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역할. 상담학연구, 9(3), 1063-1080.
- 허 준 (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 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9).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6: 구조방정식모형 초급. 서울: S & M 리서치 그룹.
- 황광숙 (2006). 자아방어기제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 (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완벽주의 및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Perfectionism in an interpersonal

-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n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8, 297-316.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vies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yduk, O., Downe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sensitivity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 245-271.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Basic Books. New York: BasicBooks.
- Christman, J. A. (2012). *Examining the Interplay of Rejection Sensitivity, Self-Compassion, and Communic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PhD diss., University of Tennessee.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31-247.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Impett, E. A., Gable, S. L., & Peplau, L. A.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44.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Pennebaker, J. W. (1992). Inhibition as the linchpin of health. In H. S. Friedman(Ed.), *Hostility, Coping, & Health* (pp. 127-139). Washington, DC: APA.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uart, G. W., & Sundeen, S. J.(1987).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the CV Mosby co.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원 고 접 수 일 : 2016. 04. 06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5. 16  
게 재 결 정 일 : 2016. 07. 06

##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 Seon-Kyeong

Chung, Yeo-Ju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357 university students using RSQ, AEO-K, KIIP-SC.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surement model consisting of rejection sensitivity, self-defensive ambivalence, relation-involved ambival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fit the data well. Second, competitive model 2 was selected over research model and competitive model 1 for the final research model (NFI=.927, TLI=.920, GFI=.925, CFI=.944, RMSEA=.089).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involved ambival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was fully mediated by self-defense ambivalence. Fourth, an order-based double mediating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s occurred: relation-involved ambivalence preceded self-defensive ambival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rejection sensitivity, interpersonal Proble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elf-defensive ambivalence, relation-involved ambivalence